

[기획]



중심사 '자행회' 등 지역 불교 단체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차 한잔의 심터'라는 다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재)천주교성요한 수도회가 위탁운영중인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은 해마다 '전국노인서예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 나눔' 실천 중앙교회 문화센터



광주중앙교회가 운영하는 동화구연 프로그램.

“지역민들에 문 활짝 다양한 무료 강좌”

금남로 시대를 접고 화정동 시대를 연 중앙교회는 문화센터를 활성화 하는 등 문화 향기를 전하는 나눔 활동에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중앙나누리문화센터 교육 시설 증축 공사를 진행중인 중앙교회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난 2006년 작은 규모로 문을 연 중앙나누리도서관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놀이터' 같은 도서관을 꾸미는 중앙나누리도서관은 다양한 책을 구비하고 지역민들에게 책을 대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중앙교회는 또 3천 500석, 1천석 등 다양한 규모의 공간을 클래식,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중앙나누리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나누리문화센터도 지역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

지난 2005년 어린이 문화센터로 출발해 지난해 성인 강좌를 개설한 중앙나누리문화센터는 현재 55개 강좌를 운영중이다. 입회비 1만원만 내면 3개월 동안 무료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어린이)는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불학자 강좌에는 8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회 신자는 100여명 정도 나머지 회원들은 지역민들이다.

중앙교회 류화정 목사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회와 갖고 있는 공간들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해 다양한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나눔의 미덕이 함께... “세상의 빛이 되라”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지난 2월 서울 성곡회대 성 마가렐 성당에서는 의미 있는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졸업장을 받아온 이들은 성 프란시스코대 인문학 과정을 모두 마친 노숙인들이었다.

사회로부터 부정적자로 내몰린 노숙자들이 1년 간 철학, 문화, 예술학 공부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을 끈주 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귀한 자리였다.

이 교육 과정은 미국의 얼 소리스가 1995년 소외 계층을 위해 개설한 인문학 강좌인 '클레멘트(Clemente) 코스'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인 것으로 대한 성공회가 운영중인 노숙인 다사서지지원센터의 임영인 신부가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종교계는 '나눔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다. 신도를 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 등 일반 시민들과의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종교 단체들의 움직임은 사회에 빛을 던진다.

지역 종교 단체들의 경우 아직은 사회 복지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점차 '문화 나눔' 쪽으로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종교 단체들의 '문화 나눔'은 재정이나 인적 자원 면에서 든든한 후원자인 '신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십시일반 힘을 모을 경우 일반 문화단체들과 달

리 프로그램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그만큼 파급효과도 크다.

관건은 '프로그램'. 아직은 눈에 띄는 아이템이 별로 없지만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2006년부터 매주 수요일이면 화순 전남대 병원에는 그윽한 차 향기가 퍼진다. 지역 불교계가 참여하고 있는 다도(茶道) 나눔 덕이다.

'차 한잔의 심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행사

<11> 종교계의 문화 나눔

센터는 '빛고을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무등산·시청 등을 함께 둘러보며 '남도문화유적답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단발로 행사를 끝내지 않고 1년 과정으로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상 편지와 사진첩을 제작해 주는 등 관심을 잊지 않도록 '추억거리'를 만들어 준다.

월교교회, 동명교회, 중앙교회 등 지역 교회들은

는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은 '전국노인서예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서예대전은 다른 노인복지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종교인들로 구성된 예술인들의 활동도 문화나눔의 큰 줄기다.

지난 2001년 기독교 성악인들이 창단한 '쌍무스 앙상블'(단장 이선형)은 지금까지 200여회 넘는 공연을 통해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다.

염종호·김백호·노연선·이환희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모인 '쌍무스 앙상블'은 교회 등에서 '선교 공연'도 펼치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등은 물론이고 특히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는 '시골' 공연은 단원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 가는 곳이다.

그밖에 개신교를 믿는 웰리스트들로 구성된 메타필로스 첼리스트, 천주교 신자들이 꾸린 실내악단인 로고스 챔버오케스트라 역시 정기 공연 이외에 교도소, 복지관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자주 마련하고 있다.

한빛외국인노동자센터 김영섭 사무국장은 “아직까지 지역 종교단체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종교단체 활동 무게 중심 사회복지서 '문화 나눔'으로 '차 한잔의...' '빛고을 나들이' 등... 종교별 예술인 모임도

는 대원사의 한꽃문화아카데미, 중심사 자향회, 덕림사 다도팀, 원각사 다도봉사단 등 불교 단체 소속 다인(茶人)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환자와 의사, 보호자가 함께 생활하는 병원은 아무래도 마음이 가라앉기 쉬운 공간. 회원들은 환자들에게 찬란한 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차 한잔씩을 전해준다.

한빛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작업들을 전하고 있다.

교회 신도를 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운영중이다. 서천교회 역시 오는 4월부터 문화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보통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문화센터는 유료로 운영되지만 기초수급대상자 등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각 문화센터별로 모든 사람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강좌들도 많이 개설해 두고 있다.

또 (재)천주교성요한 수도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눔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시다.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향기로운 문화 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사 (062-220-0661, mekim@kwangju.co.kr) 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062-381-223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대 100평 대세대주백, 불류상도, 복지실바사실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061)833-6669
(010)8004-6669
심. 완도개인독선
별장, 농장 등.
다용도개발가능
한필지 6천 200평 (마을앞)
평당/20만원. (교환가능)

금보부동산건설링
(02)281-8949
(011)602-2233
(신수동 54-51(1)우암1문입구 상가거리)
▶토지매매
▶건물매매
▶상가건물/모텔
▶주택
▶주유소/부지매매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 할아버지 사들임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옆)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 예상분석, 예고등기, 전수위 기등기, 가처분, 가압류, 가집행 등 특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평소환선사 nf x 0.3025)